

어둠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 우주의 신 휴이가 빅뱅을 일으켰고 인류를 탄생시켰다. 우주 신 휴이는 작은 먼지에 불과한 호모사피엔스 '우가루따'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만드는 재능  
신에게 재능이란 선물을 받은 우가루따는 세계를 음악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가루따는 신비한 힘을 느끼고 검지를 펴 휴이가 있는 하늘을 향해 가리킨다. 우주신 휴이는 그의 행동에 감동하여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모습을 재현한다.

시간이 흐르고 우가루따의 유전자를 지닌 천재 뮤지션들은 각자만의 시대에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감을 널리 퍼트린다.

어느 날 신들의 신 제우스 신이 휴이 앞에 나타나 지구의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현 우주에 많은 정이 들어버린 휴이는 제우스 신을 설득하기 위해 지구가 지닌 기적과 같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현시대 최고의 아티스트 루타와 함께 제우스 신을 설득하러 마지막 길을 떠난다.

| 장르    | 특징      |
|-------|---------|
| 구석기   |         |
| 바로크   | 15~17세기 |
| 재즈    | 1900년대  |
| 블루스   | 1900년대  |
| 락     | 1950년대  |
| 힙합    | 1970년대  |
| 전자음악  | 1990년대  |
| K pop | 2000년대  |

## 전체 구성

### 1. 빅뱅

1. 튜토리얼로 자연스럽게 온보딩
2. 가운데 흰색 점이 조금씩 커지다가 빠르게 터지며 화면을 흰색으로 덮어버린다.

### 2. 천지창조

1. 빅뱅이 터지는 연출과 함께 우가루따와 휴이의 손이 맞닿아 있는 상황으로 연출
2. 타이틀 제목

### 3. 스토리 모드

1. 인물이 태어나며 새로운 챕터가 시작
2. 인물이 죽으면서 챕터가 마무리되며 자연스럽게 다음 챕터로 이동한다.

#### 4. 게임 진행 방식

1. 병맛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유저에게 재미를 줍니다.



1.

2. Bits & Bops 처럼 챕터별 다양한 컨셉으로 연출

1. 일반적인 리듬게임 연출로는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

2. [참고 영상](#)

#### 5. 게임 연출

1. 캐릭터의 연주 실력이 좋다면 말풍선 형식으로 휴이 신의 표정을 보여줌



1.

1,024 x



참고 사진

- 2.
3. 여기서 다양한 영화, 드라마, 인터넷 밈을 오마주 하여 순수 즐거움을 유저에게 선사
2. 캐릭터의 연주가 형편없다면
  1. 홍수, 벼락, 지진,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활용하여 코믹하게 연출
    1. 여기서도 영화를 패더리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음
3. 점수 측정
  1. 그 시대의 평론가가 등장한다.
    1. 총 5명이며 빨간 안경을 쓴 이동진 평론가를 패더리 한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음
      1. 이동진 아저씨는 영화 평론가인데 왜 음악을 평론하죠?
        1. 이것이 게임적 허용이라 판단, 사실 그냥 재미있어서...
    2. 시대에 맞춰서 연출을 다르게 한다.
      2. 석기 시대
        1. 조개 껍데기의 수
4. 종합하자면
  1. 감정, 연출 과장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포인트



1.



2. 하나하나씩 적어보니 홍철 책방과 톤앤매너가 비슷하다..

6. 결말

1. 신들의 신이 있다는 것이 반전 포인트



1. 근엄하고 무서운 캐릭터로 연출하다가 인류의 선물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한다.
2. 참고 사진과 같은 무게감이 필요



3.



4.

7. 끝

1. 피드백 환영